

# 활량 화살

# 힘의 균형 이룰때 中道

## 산문박의 禪

궁시장(弓矢匠) 유영기 씨

3대째 가업... 40년 외길

고려 화살 원형복원 '작업화두'

작년 중요무형문화재 47호 지정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의 삶 하나하나가 어디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 있던가. 잠에서 깨어나서부터 다시 잠들기까지 사람의 행위 하나하나를 전부 무엇인가 목표로 하고 있는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크고작은 수많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점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지는 화살은 어쩌보면 인간 삶의 한 상징처럼 느껴진다.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화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꼬박 1년3개월이 걸린다. 또 130번이라는 세심한 손질이 필요하다.

“활을 쏘는 것은 단순히 기술만으로

효시(嚆矢·소리나는 화살), 박두(栝頭·축을 나무로 만든 화살) 등을 복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오랫동안 공석이던 중요무형문화재 47호 궁시장 기능보유자로 지정됐다.

유영기씨의 '화살업'은 조부(유창원) 때부터 3대째 내려온 가업이다. 6·25가 터지자 그의 선친(유복자)은 여느 사람처럼 땅문서나 집문서를 갖고나온 대신 부레풀(화살을 붙이는 풀)만을 소중하게 안고 피난을 갔다. 그때 그는 화살업에 대한 선친의 공지와 애착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가 화살업에 뛰어들자 활터와 활량이 사라지고 편사·담파·방·살찌(활시합의 일종) 등과 같은 사



### 서양이 왜 불교에 관심있는지

**문** 요즘에 와서 서양사람들이 불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듣고 있습니다. 서양은 과학문명이 앞서 가는데 그들이 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불교가 현대사회를 구제할 수 있는 종교라는 말까지 하는지요?

(구창서·대구 수성구 범어동)

**답** 불교는 종교라기보다 그대로 진리입니다. 이 우주의 근본도리,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르침이면서 삼라만상이 살아가는 이치를 일러 놓은 것이니 여느 종교와는 달리 진리 그 자체란 말입니다. 그러나 무슨 종교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종교라거나 또는 어느 시대에 알맞는다고 하는 말은 불교에 해당될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니까요.

서양사람들이 이제와서 불교에 부적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데 불교가 색다른데서 그러한게 아니라 개종에 눈뜬 사람들이 있어서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진리인줄 알아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들은 분명히 과학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는데 답답하거든 '이 친구야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너 뿐이니가 증명해 보아라' 하라고 했는데 이게 관(觀)입니다. 직속으로 들어가는 말이죠.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몸종이로 길을 걷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는데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 주인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데 그걸 알게하는 것도 주인공이지 알아알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도 '너다' 하고 밀어넣을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는 주체와 대상이 따로 있다면 내가 무엇을 분다하는 식으로 틀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자와 지켜보는 대상이 다르지 않으니 관찰 수밖에요. 생각을 넘어서서 자리, 영원한 근본생명의 자리, 그걸 자성본래불이라고 불려도 됩니다만 움직이게 하는 것도 그 자리고 알게하는 것도 그 자리니까 부르는 마음 따로 한마음 따로가 아닙니다.

'이 친구야' 한 것은 이름이니까 주인공이라해도 되고 참나라 해도 되고 자성본래불이라해도 되고 내 마음의 부처라고 해도 됩니다. 부처이긴 없으니까요. 부처도 이름이죠.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봉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성상담은 조계종 한미음선원 대행스님에게 고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구로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 “탐심으로 활시위 당기면 매번 과녁 빗나가요” 활량 체격따라 시누대 선택... 130번 공정거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활량(활 쏘는 사람)이 과녁을 향해 시위를 마음껏 당겨놓을 때는 마음까지 놓아야 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말이 정지자들 사이에서 회자된 적이 있죠. 정말 마음을 비워야 될 사람은 사정(射亭·활터)에 들어선 활량입니다. 과녁의 한가운데를 응시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의 한 점을 향해 그것을 응시하는 것이죠. 사정에 올라선 활량 대부분이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이유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활량이 과녁에서 빗나가면 마음이 아직도 과녁을 탐(貪)하기 때문이라고 자신을 책하게 되죠. 화살만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0여년간 화살만을 만들어온 궁시장(弓矢匠) 영집(櫻集) 유영기씨(61세)는 굳이 장인(匠人)보다는 시인(詩人·화살을 만드는 사람)으로 불러 주기를 원했다. 단순히 물건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부심에서다.

그는 화살을 만들던 조부와 부친의 가르침과 문헌으로만 전해 내려온 조선시대의 편전(箭箭·매우 작은 화살),

정밀도가 장안에서 자취를 감추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부레풀을 소중히 하던 부친의 모습이 생각나 화살공방을 떠날 수 없었다고 한다.

“화살이 곧게 나아가 과녁을 맞추기 위해서는 활량, 활, 화살이 서로 적당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일 활량의 힘, 활의 강도, 화살이 서로 어우러지지 않아 균형을 잃게되면 활이 끊어지거나 화살이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활 화살 그리고 힘을 적절히 구사해야 하는 활량 등 어느 하나가 균형을 잃으면 목표는 빗나가고 말죠. 인생살이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다는 건가 정성이 부족하다는 건가 하면 일을 그르치게 마련이죠. 균형을 이룬 삶이 아날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균형잡힌 삶이아날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중도(中道)의 세계가 아닐까. 그는 화살을 만들 때는 물론이지만 무슨 일을 할 때면 부처님이 한 제자에게 자상하게 가르치신 거문고의 비유를 기억하곤 한다. “거문고를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강한 소리가 나면서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높아지므로 적당하게 잘 조여진 거문고줄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얻듯 잘 조여진 거문고줄처럼 수평을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체자인 우리가 거문고줄을 고르듯, 화살을 활에 끼워 힘을 잘 조절해 과녁을 맞추듯 그러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벼운 화살을 강궁(強弓)이나 체력이 우수한 활량이 쏠 경우에는 활의 강한 탄력에 화살의 뒷부분이 몹시 흔들리며 잘 나가지 않고 과녁에도 못 미친다는 것.

“화살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할때 직접 오라고 합니다. 번거로운 일이지만 좋은 시인(詩人)은 먼저 활량의 신체와 체격을 살펴 그사람에 어울리는 화살을 만들어주기 위해 적당한 시누대(대나무 일종)를 선택하는 것으로 화살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시누대의 선택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시누대는 12월과 1월 사이 서리를 맞고 해풍에 그슬린 것을 선택한다. 이때의 것이어야만 시누대의 길이 매우

강하고 속이 물러 화살이 과녁에 꽂히거나 땅에 떨어져도 쉽게 파손되지 않고 또한 변형이 적다는 것. 130번이나 걸리는 공정을 일일이 손으로 섬세하게 해야한다. 이러한 화살 하나에 쓰는 것은 능란한 기술뿐만은 아니다. 그만큼의 정성을 쏟아야 하기에 화살을 건넬 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시심(詩心)까지 간네는 것이고 이러한 그의 정성은 그동안 전승공예전 등 각종 민속공예품 대회에서 입상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고구려벽화에 말을 타고 화살을 겨누고 있는 호쾌한 무사가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그 고구려화살을 복원하고 싶지만 문헌상에 남아있는 자료가 없으니...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찾아 고구려시대 화살들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이 원(願)입니다만...” 말꼬리를 흐리며 이내 조막순이를 쥐어잡고 시누대 골을질을 시작한다. 그는 곧 주위의 모든 것을 잊은 듯 화살만드는 삼매에 빠져들었다.

오종욱 기자

다. 그러나 그들의 과학이라는 게 물질 위주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정신과 물질이 둘이 아니고 따라서 같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과학이 반쪽밖에 안됩니다. 기령 의학이 발달되어서 병 치료에 큰 진보가 있다하더라도 정신계를 무시하고는 많아야 5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50%는 어떻게 합니까?

일전에 외국에 가서 법회를 할때 어느 분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지요.

“당신네들의 과학이 크게 발달이 되어서 잘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불교 아닌 건 없다. 불교는 영원한 생명인 근본도리이기 때문에 불교가 어디에 구현된 것인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풀 한포기도 불교 아닌게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알아듣고서는 대구하기를 “우리들은 보이는 세계이고만 씨름을 하지 안보이는 세계를 의연해 왔는데 그래서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찾는마음과 한마음은 다른지요**

**문** 스님께서 한마음을 일기위해서, 한마음이 되기위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 중에 ‘야 이 친구야 네가 있다면 증명해 보아라’ 하신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마음하고 한마음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요.

(정철부·서울 강남구 논현동)

**답** 우선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하면서 참 나를 발견해야 하겠

**고통받는 사람보면 안타까워요**

**문** 평소의 수행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는 마음 편히 지냅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매사에 고달리면서 고통받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견디기 어려운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박현숙·대전 유성구 덕진동)

**답** 둘이 아닌 도리를 모르면 견져줄 수 없겠지요. 세상을 좀 넓게보면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천당도 지옥도 이 자리이구요. 그런데 우리가 한마음으로 둘이 아닌 도리를 안다면 견져줄 수 있습니다. 그 도리를 안다면 나와 내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대로 나인데, 제3자도 나인데 어째서 내가 나를 견져지 못하겠습니까?

기령 나는 부처님 공부를 배워서 편안하게 너는 왜 그걸 모르고 괴롭게 사느냐 하신다면 벌써 틀로 본 것이니 아무리 안타깝다든 내가 나를 견져지 못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본래 나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고 마음으로 통신이 되게해야 합니다. 그러하면 나부터 없어야 하겠지요. 나라는 생각이 있는한 어떻게 하나가 되고 응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도리를 배우려면 첫째 내가 죽어야 하고 둘째 내가 죽어야 둘이 아니게 나루는 도리를 알게됩니다.

소를 견져려면 내가 소가 되어야하고 돼지를 견져려면 돼지가 되어야 합니다.

**전강 한증요법 문화 불 한증막**

“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  
96.11. 5 신장개업  
쭉쭉, 맥반석 찜질방 겸비  
”

)에 좋은 한증 요법

피부미용  
류마티스 관절염  
산후조리

..... 문화 불 한증막 .....

위치 : 부산시 대연4동 UN묘지 정문 앞  
전화 : 051)627-6605  
버스 : 25,68,78,34,134 UN묘지 정문앞 하차

이 표 소지자에  
입실료 30% 할인.  
1/9 ~ 3/31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남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 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 어느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패를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다음엔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쪼뼂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딱딱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는 문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